‘한일정보협정’ 싸고 동북아 외교전 후끈

‘G2 충돌’ 2라운드 비화 조짐

美 ‘무관’-中 ‘봉쇄의도’ 반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동북아 외교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제사회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이른바 ‘G2(주요2개국) 충돌’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외교가에 팽배하다.

‘밀실처리’ 논란 속에 한국 정부가 예정된 시간 직전에 협정 서명을 연기해 ‘국격을 해쳤다’는 비난과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태연한 척하고 있다. 국무부 당국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이번 일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한일정보협정 추진의 동력이 미국의 대(對) 중국봉쇄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히 거론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최근 아시아를 최우선 안보지역으로 설정한 신(新)국방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아예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패네타 장관이 한국측에 한일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관측을 부인하지만 한미 2+2회담이 끝난 뒤 불과 보름만에 정부가 ‘밀실처리’라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변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2+2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구축을 위해 한미일 3국간 정보협력 필요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측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사거리 연장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한일 협력’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노골적인 불만을 피력했던 중국은 신경이 더욱 예민해져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일 한일정보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사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3각 협력틀’에 한국이 가세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사설은 한국 정부의 선택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한국의 장기 국가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대국들 사이의 ‘최전선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익의 계산’을 냉철하게 따져보는 실용적 자세와 불필요한 갈등요소 유발을 자제하는 현명한 대응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게 한국 외교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주문사항이다. /연합뉴스

정부, 한일정보협정 진상 조사 착수

이해찬 “MB 사과해야”… 조병제 대변인직 사직

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대상은 당시 협정 체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 전원이다.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역시 자체 진상조사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 추진 과정에서 비정상적 처리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계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가려지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며, 과실이 명백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질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 역행의 완결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을 모아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4일 하의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DJ적통’ 부각 하의도 생가 방문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4일 ‘텃밭’인 호남에서 이틀째 표밭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전날 광주에서 민생 투어를 한 정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와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를 잇따라 방문하고 민주당 내 유일한 ‘DJ 적통’임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정 고문은 이날 신안 하의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유지처럼 통합을 이룩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날 새벽 목포의 농산물 경매장을 찾아 직접 경매를 체험하고,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에는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와 산정농공단지, 목포조선소를 둘러봤다.

이와 함께 정 고문은 인터넷 방송인 ‘정세균의 옥상 토크’를 매주 3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보내기 시작했다.

정 고문은 첫 방송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특별한 국정 경험이 없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특별한 삶을 살아 서민의 애환을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법관 인사청문회 10~13일 개최 확정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0~13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0일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11일에는 김병화 인천지검장, 12일에는 김신 울산지법원장, 13일에는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에 대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날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4선) 의원을, 여야 교섭단체 간사로 새누리당 이한승,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밤 달구는 팝 페스티벌

비·샤이니 등 아이돌 총출동

여수세계박람회가 선보이고 있는 팝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16일 가수 ‘비’를 시작으로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엑스포 팝 페스티벌은 ‘샤이니’ 에이핑크, 유키스, 씨크릿, 인피니트 등의 아이돌 가수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또 이승기, 박완규, 자우림, 세븐, 다비치, 바이브 등 20~30대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과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선희, 김건모, 조관우 등 라인업이 화려하다. 아이돌 그룹의 참여는 소녀 팬들 뿐만 아니라 삼촌 팬들까지 공연장으로 모여들게 하고 있다.

또 울랄라세션, 허각, 50kg, 버스커버스커 등 대형 오디션 우승 주역들의 참여와 바비킴, 다이나믹 듀오, 쌈디가 힙합의 흥을 돋우며 관람객들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다비치, 바이브, 박효신, KCM, 성시경, JK김동욱 등 감성 발라드의 대표주자들, 박완규, 자우림, YB, 부활, 등 대한민국 대표 록 가수들도 참가했다. 장사익, 이은미, 인순이, 박미경 등 대형 가수들의 참여는 축제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2012 여수세계박람회 미국의 날 참가국 대표인 제인 룹첸코 미 국립해양대기청장(왼쪽 두번째), 성 김 주한 미국대사(왼쪽) 등이 4일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국가의 날 공식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강동석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 이준희 조직위 정부대표, 박준영 전남지사. /연합뉴스

박준영지사, 美 대표단 상대 외교활동

박준영 전남지사는 4일 여수세계박람회 ‘미국 국가의 날’을 맞아 박람회장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벌였다.

이번 박람회 미국 국가의 날은 지난 1779년 7월 4일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을 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대표로 루브첸코 상무부 부장관 겸 국립 해양대기청장 등 19명과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했다.

박 지사는 이날 “인류는 머지않은 장래에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래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바다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태국관은 인어 로봇과 화려한 전통 춤으로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다. 전시관에서 증류된 물을 뿌려, 관람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 노력을 보여준다. 로봇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국가의 날-태국(엑스포홀·오전 10시)
△팝페스티벌-2PM, MISS A(특설무대·오후 8시)

△어제의 관람객 수=5만6966명(이하 4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280만6315명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근린주택
▷서구 농성동 역세권 6층 의료시설 대지290평 건평930평감정가22억 최저가14억
▷남구 주월동 2종주거 4층 상가주택 대지67평 건평155평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
▷영광군 영광읍 2종주거 2층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평90평 감정가2억 최저가1억1천
▷남구 백운동 준주거지역 3층 상가주택 대지48평 건평100평 감정가3억2천 최저가2억2천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광산구 월계동 2종주거 4층 다가구 대지131평 건평197평 감정가6억6천5백 최저가5억3천
▷서구 화정동 주거지역 2층주택 대지70평 건평 56평 감정가1억8천 최저가1억4천
공장 / 창고부지
▷북구 양산동 공업지역 대지1800평 건평 1530평 감정가29억3천 최저가18억8천
▷광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감정가2억2천 최저가9천6백
토지매매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무안읍 신학리 기업도시부지 농림지역 답3,000평 매매1억5천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 요양시설용 건물 동구 대지197 건평807 법인이전합 10억
• 요양시설 등 적합. 화순군 도곡 대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 요양병원. 담양군 창평면 대지 698평 건평 629평 16억
• 충장로 4가. 대지 141평 건평 620평 법상가 37억5천 매도 18억5천
• 순천시 장천동 5층 건물 대지 88평 건평 488 대출 4억 매도 6억2천
• 농성동 다가구 40세대와 상가 임대사업에 적합 5억6300만원
• 유동 로타리 대지 240 건평 818 대출 18억 병원, 사옥, 요양시설 적합 법인이전 24억
나대지
• 충장로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철거해야함 원룸.생활주택적합 공시지가에 매도2억56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편백나무가 많은산 10900평 환자분들 요양시설에 좋음. 1억천만원
• 공장부지 함평군 해보면 1725평 국도 접했음 2억8천
• 화정동 6차선 도로 준주거 106평 공시가 5억3400 매도 5억6200만원
• 누문동 8차선 도로 공시가 6억천 대출 4억5천 매도 4억8천
• 중흥동 상업지역 166평 3거리 코너 공시지가 4억7천 매도5억3천
시골주택 및 주택지
• 함평 엄다면 대지100평 사용 주택 17평 1800만원
• 화순 남면 대지76 주택은 수리해야함 15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57평 대출 4천 4600만원
• 장성 서삼면 금계리 대지 326평 건평 47 교환가능 1억3천
매도·교환
• 모텔. 광주근교 순창군 땅1318평 건평180평 대출2억5천 전세2천에 월300만원 임대중임. 3억7천
• 북구 우산동 대지 100건평 413 전세 7천에 월 800선 수입 대출 6억 매도 10억 5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매수 매도 대기중
■건축상담■
예산 부족으로 건축을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 부지를 가지고도 경험이 없어 건축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
호텔! 무인텔! 사우나! 빌딩! 주택! 상가건물! 건축비, 시공비 없어도 신축에서 준공, 분양까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지금 상담해 주십시오.
신속한 건물 신축 공사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구 인■
함께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상가빌딩매매)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4평
* 서구 화정동 로마나이트부근 모텔 대지 99평 건평 344평 룸 00실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 2181평
* 북구신안동 전대정문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600평
* 북구 두암동 동강대후문 원룸 대지71평 건평 98평 방15실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웨딩홀 대지 1741평 건평 약4000평
* 광산구 신창동 보건대 부근 대지 630평 건평 460평
* 나주시 남내동 상가빌딩 대지 119평 건평 210평
광고물건 (토지매매)
* 상무지구 치평동 대지 1000평
* 서구 서창동 대지 948평
* 북구 두암동 대지 500평
* 광산구 송산유원지부근 대지1010평
* 광산구 수완동 대지 10,737평
* 나주 금천면 원곡리 대지 3,200평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대지1,900평
최상의 전원주택 적합 부지 매매
*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대지2,340평
* 장성군 남면 행정리 대지 500평
* 광양읍 덕례리 대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대 지 : 630평
-연건평 : 460평
-보증금 3억5천만원/월1600만원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건물매매
- 대 지 : 200평
- 연면적 : 150평
- 보증금 : 1억5천만원
-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 매매금액 : 29억원
주유소 매매 (동구)
- 대 지 : 300평
- 최고 매출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첨단산단 공장매매
- 대 지 : 1000평
- 공 장 : 300평
- 매매가 상담후 결정
투자자 모십니다
1억 - 5억 투자자 모심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